

2011년 가을 학기  
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---

전체 주제:  
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38

골로새서에서  
(3)  
새 사람의 조성 성분

성경: 골 3:4, 10-16, 빌 1:8, 몬 7, 12, 20

I.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다—골 3:10-11.

- A.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시며,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—마 17:5, 골 1:18, 2:2, 17, 3:4, 10-11.
- B.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—11 절.
  1. 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으며 타고난 사람을 위한 어떤 가능성도, 어떤 여지도 없다—10-11 절.
    - a.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한 새사람을 이루지만,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부이다. 타고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.
    - b.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—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—이 있다—2:17, 3:4, 11.
    - c. 한 새사람은 확산되고 계시는 그리스도요 확대되신 그리스도이다—2:19, 엡 4:16, 24.
  2.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 새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었다.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는 새사람의 요소인 신성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—엡 2:15.
    - a. 우리는 오직 신성한 본질 안에서 신성한 본질로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. 이러한 본질을 갖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.
    - b. 그리스도 자신이 새사람의 본질이다. 그러므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.
    - c.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신데, 그것은 그분이라는 본질로 새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이다.
  3.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—골 3:11.
    - a.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다—1:27, 3:11.
    - b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므로 새사람 안에는 어떤 종족이나 국적이거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—10-11 절.
    - c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신 것의 실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여 우리 자신 아닌 그분을 살아야 한다—갈 2:20, 빌 1:20-21 상.
      - (1) 그리스도가 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의 생활이라면 실재에 있어서 그분만이 새사람 안에 계실 것이다—골 3:10-11.
      - (2)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살 때,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실지적인 방식으로 새사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실 것이다—11 절.
    - d. 그리스도가 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—11 절.

4. 한 새사람은 우리가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되어 그분으로 대치될 때 존재하게 된다—고후 3:18.
  - a. 새사람은 모든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침투되시어 우리를 대치하시는,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다—골 3:11.
  - b.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대치하실 때까지 반드시 유기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셔야 한다—엡 3:17 상, 갈 4:19.

**II. 그리스도로 조성된 새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—골 3:12-16, 빌 1:8, 몬 7, 12, 20.**

- A.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기능들을 지닌 인간의 속 부분들이 있으셨고,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은 그분이 그분의 사랑, 갈망, 느낌, 사상, 결정, 동기, 의도를 포함하여 그분의 생각, 감정, 의지, 혼, 마음, 영에서 체험하신 것이다—눅 2:49, 요 2:17, 마 26:39, 사 53:12, 42:4, 막 2:8.
- B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분을 계속 체험한 사람이었다—빌 2:5, 고전 2:16 하, 롬 8:6.
  1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—그분의 애정, 부드러운 긍휼, 동정—에서까지 그분과 하나였다.
  2.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속 부분들을 간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.
    - a. 그는 그리스도의 생각뿐 아니라 그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다—엡 3:16-17.
    - b. 바울의 내적 존재는 변화되고 재배열되고 개조되었다—갈 4:19.
    - c.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—빌 2:5.
  3. 진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—정직, 신실함, 신뢰성—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—고후 11:10.
  4.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었다.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타고난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—고전 16:24.
- C.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머물러야 한다—빌 1:21 상, 8, 골 3:4, 10-11.
  1.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체험했다. 그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 부분에서 그분과 하나였다—빌 1:8.
  2. 바울은 그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을 살지 않았다. 그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았다—골 3:12.
  3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,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—요 15:4, 9-11.
  4.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 거하고, 거기에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—빌 1:7, 4:23.
- D. 빌레몬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산 새사람인 교회의 그림이 있다—7, 12, 20 절.
  1. 속 부분들은 내적인 애정, 다정, 자비를 의미한다—빌 1:8, 2:1, 골 3:12, 몬 7, 20.
  2.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자비는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다—12 절.
  3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상괘해진 속 부분들을 가져야 한다—7, 20 절.
- E.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수록, 실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두이시고 모두가 되시도록, 새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커지고,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는 갈망은 더 강해질 것이다—골 3:4, 10-11.